

세계著作權조약에 對 備 考



李 光 榮
〈한국일보 특집과학부장〉

파리는 생각만해도 마음을 설레게 했다. 기자가 「世界觀을 바꾼 사람들 - 科學史의 現場」을 찾아 나선 첫 기착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른 아침 6시15분께 드골공항에 내려 입국수속을 밟으며 그 거만하고 불친절한 드골형의 파리인을 대하는 순간 머리 속에 그렸던 파리의 환상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기자가 첫 여장을 푼 웨스트·언드는 파리 중심가에 비교적 가까이 자리잡고 있는 중급 호텔로 우리들에게 전중앙정보부장 金炯旭씨가 행방불명되기 직전 투숙했던 곳으로 더 잘 알려진 명소(?)이다. 그래서 파리를 찾는 한국사람들은 웨스트·언드를 즐겨 택한다고 한다.

이른 아침 파리의 풍경은 말이 아니었다. 기관 단층에 베레모를 쓴 검은제복의 기동타격대가 공항과 공공건물은 말할 것 없고 골목 골목에 늘어서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지난해 9월 파리의 시가 한복판에서 연이어 터진 이란 특공대의 폭탄 테러난동이 파리장들에게 안겨준 충격파가 어느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했다.

아무튼 기자는 과학사의 현장취재를 이렇게 시작해서 9개국 38개 도시를 순방하며 과학사에 한 획을 그은 과학자 30명의 발자취를 더듬어 갔다.

지금 기자는 장황한 취재의 뒷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자가 파리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애비뉴에 있는 첫 방문지 발견전시관(Palais de la Découverte)을 찾아 나서며 예기치 않은 큰 장벽에 부딪쳐 느낀바가 있기 때문이다.

발견전시관엔 프랑스 출신의 위대한 과학자들에 관한 각종 사진자료가 비치되어 있다. 기자는 사진과 책임자인 마네부인을 만나 비치된 사진자료첩을 얻어다 필요한 것들을 골랐다. 마네부인은 주저하지 말고 필요한 것은 분류번호만 적어 내라고 했다. 기자는 인물에서 태어나 살던집, 연구실, 가족사진등을 고르며 프랑스는 역시 선진국이란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의 과학관과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발견전시관이 좋은 건물에 한국에서 보지 못한 색다른 제도와 봉사기구를 두고 있다는데 저으기 호감이 갔다.

그러나 기자는 다음 순간 찢끔하고 물러서지 않

으면 안되었다. 허름한 옛 흑백사진 한장 인화하는데 1백39프랑을 내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만8천5백원 꼴이 되는 셈이다. 50여장을 골라 놓았으니 93만원 돈이다. 마네부인은 물론 이 돈속엔 게재료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과학자를 한국신문에 PR해주는 것이니 그냥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식이었다.

파스티르 연구소를 취재하면서도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 기자의 신분과 취재 목적을 밝혔지만 모든 자료는 돈을 주고 사야만 했다. 기자가 사진을 찍자 파스티르박물관의 아닌 빼로관리관은 용도를 재차 묻는다. 책을 만들기 위한 것이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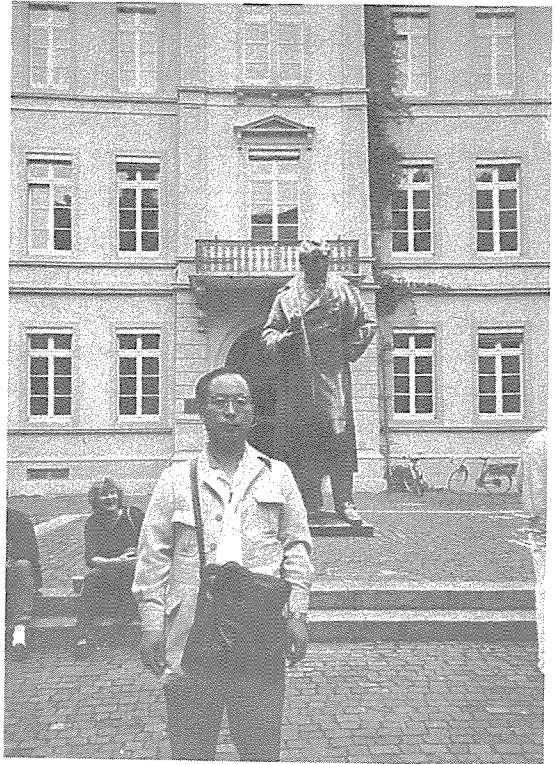
베르린의 막스 프랑크재단을 찾았을 때도 같은 문제에 봉착했다. 독일의 막스·프랑크재단은 프랑스의 경우보다는 좀 나은 편이었다. 이곳에서는 재단소유의 것은 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개인이 찍은 사진은 한장에 20달러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돈으로 1만6천원 꼴이다.

사진자료를 얻는데 가장 애를 먹었던 곳은 영국 캠브리지대학부설의 캐빈디시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이다.

캐빈디시연구소 홍보담당 책임자인 존·디킨과는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비교적 수월하게 약속이 됐다.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준비해간 인삼차를 가방에 챙겨넣고 버스를 탔다. 고마움에 대한 표시를 위해서다.

인삼차를 받은 존·디킨은 그의 아내가 차에 관심이 많다고 무척 좋아했다. 특히 인삼차가 나이든 분들에게 좋다는 기자의 설명에 그의 장모가 드는 것이 좋겠다고 활짝 웃었다. 기자는 그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잘 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가까운 식당으로 갔다. 맥주도 한잔 시켜놓고 이런저런 얘기로 화제의 꽃을 피우며 점심을 즐겼다.

문제는 다음에 일어났다. 존·디킨은 빌이 날아



▲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로에 있는 분선동상 앞에서 있는 筆者

왔는데 돈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값을 보니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선뜻 지불을 했다. 빌을 함께해서 가져오라 해놓고 꿈쩍하지 않고 있으니 성질이 급한 사람이 치루기 마련이었다.

캐빈디시연구소로 다시 돌아온 기자는 그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기자는 막스웰등이 연구소를 거쳐간 유명과학자들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는 전시실을 돌아보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존·디킨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잖게 촬영을 막았다. 사진실이 있으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공해 주겠다는 것이다.

기자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 존·디킨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프랑스 발견전시관에 보관된 자료 중에서 허름한 흑백사진 한장 인화하는데 139프랑(18,500원 상당)을 내라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과학자를 한국신문에 PR해주는 것이니 거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식이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출판물에 대한 무단복제나 번역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하루속히 우리의 출판계도 그동안 누려왔던 특혜에 대한 미련을 떨구어 버려야 하겠다. 줄것을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산술을 해야한다. 우리의 것을 보호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잠시 생각해 보았다. 이 연구소 창시자인 케빈디시의 일생과 업적을 보도하는 것이고 인삼차와 점심은 냈으니 사진은 그냥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존·디킨의 소개로 사진과에 내려가 여러 사진첩을 육십껏 뒤지다보니 골라놓은 것이 1백장이 넘어섰다. 이 사진을 다 달라 하기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50여장을 추렸다. 그러나 이도 많은 것 같아 다시 정선해서 30여장으로 줄였다.

고른 사진의 리스트를 디킨에게 보여 주었다. 디킨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한장에 컬러이면 80~1백달러, 흑백이면 50달러를 받고 있지만 이번은 특별한 경우이니 컬러를 40달러, 흑백은 20달러를 내란다.

기자는 멀쩡해질 수 밖에 없었다. 사진을 고르느라 3시간 정도를 끙끙댄 것이 후회스러웠다.

디킨은 기자가 머뭇거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눈치다. 사진을 애써 골라 놓고 가져가지 않겠다면 그도 이상하고 사자니 터무니 없이 비싸다. 그래서 사진정선은 본사의 편집국장이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디킨은 그것 신경쓸 필요가 없단다. 모든 것을 일단 부쳐 줄터이니 사용한 것만 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도로 부쳐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자는 앞으로 한달은 더 여행을 해야하고 기사화 하려면 몇달은 더 걸려야 하니 돌아가서 필요한 것을 신청하겠다고 극구 사양해야만 했다.

기자는 연구소를 나서며 특별히 부탁을 해서 사진을 찍는데 성공은 했지만 어쩐지 캠브리를 떠나 런던의 숙소로 돌아오는 길은 씩씩하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해 했다.

우리처럼 손님 대접이 융숭한 나라는 없다. 특히 외국 손님에 대한 대접이 융숭하다. 도대체 그럴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가 프랑스나 독일·영국보다 잘 살지도 못

하면서 말이다. 물론 기자의 경우 사전에 각국의 대사관을 통해 협조요청을 해 두었다라면 사진자료 때문에 이토록 신경쓸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둘러 떠난 취재여행이 좋은 경험을 하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월1일을 기해 세계저작권조약(UCC)이 발효됐다.

우리의 출판계는 세계저작권협약 가입을 두고 진작부터 반대입장을 취했다.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안계될 제작비의 상승이 아직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출판계에 큰 타격을 안겨 줄 것이란 데서다. 경위야 어떻든 이제 우리도 세계저작권조약 가맹국이 됐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출판물에 대한 무단복제나 번역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기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루속히 우리의 출판계도 그동안 누려왔던 특혜(?)에 대한 미련을 떨구어 버려야 하겠다는 것이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산술을 해야한다. 그동안 우리는 주는 문제만을 두고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받는 문제를 생각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 저작권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발견조사관이 사진자료를 모아두고 이를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현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독일 막스 플랑크재단에서 재단 소유의 것은 줄 수 있지만 개인이 찍은 사진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배울점이 많다.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은 물론 서로가 이를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의 것을 찾기 위해 정확히 세계저작권조약이 무엇을 뜻하며 우리의 것을 보호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